

예측 시장, 어디로 가는가

Time Will Tell: What's Next for Prediction Markets, Volume Growth Strategies, Continuous Information Perps, and Capitalizing on Momentum

관련 자산



Hyperliquid HYPE
\$39.17 (-6.71%)



Flipr Price FLIPR
\$0.00569 (-21.56%)



Polymarket POLY
\$ -

Prologue

2024년 미국 대선을 계기로 예측 시장은 더 이상 소수의 실험적 시장이 아니게 되었다. Polymarket과 Kalshi 같은 플랫폼이 정치 담론의 일부로 자리 잡았고, 여론조사와 나란히 인용되며 실제 결과를 더 정확히 예측한 순간, 이 시장은 ‘참여형 금융’과 ‘정보 기반 오락’이 교차하는 새로운 영역에 진입하였다. 투기와 참여, 정보와 재미가 동시에 작동하는 이 하이브리드 시장의 등장은 기존 시장이 다루지 못했던 행동경제적 동인(behavioral driver)을 다시 조명하게 한다.

메사리의 이번 보고서는 바로 그 변화의 맥락 속에서 예측 시장이 금융 실험에서 사회적 참여 플랫폼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살핀다. 대선 이후에도 거래량이 유지되는 이유, 규제 완화와 자본 유입이 불러온 새로운 경쟁 구도, 그리고 사용자 경험과 유통(distribution)이 시장 구조를 재편하는 흐름까지, 본 리포트는 이 변화의 배경을 단순 기술 혁신의 결과가 아닌 ‘관심의 경제(attention economy)’ 속에서 전개되는 과정으로 해석한다.

시사점은 분명하다. 예측 시장은 이제 주식이나 채권이 아닌, 카지노·스포츠·소셜 미디어와 같은 인간의 주목(attention)과 감정이 교차하는 영역에서도 경쟁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시장의 승패는 기술이 아니라 참여를 어떻게 설계하고, 관심을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다. ‘모든 것을 예측하는 시장’이 아니라, 사람들이 관심 갖는 주제를 잘 반영하고 참여를 이끌어내는 시장에서 예측 시장의 다음 장이 쓰여질 것이다.

2025년 10월 31일

코빗 리서치센터장 최윤영

핵심 내용

- 예측 시장은 제품-시장 적합성을 입증했으며, Polymarket과 Kalshi는 2024년 미국 대선 이후에도 거래량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 투기적 개인투자자(retail speculator)들이 핵심 성장 동력이다. 그들은 숙련된 전문 트레이더의 시장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비효율적 자금(dumb money)을 공급하는 점에서 핵심 확보 대상이다.
- 성장은 이해하기 쉽고, 참여가 즐겁고, 의미 있는 수익 기회를 제공하며, 빠르게 결론이 나는 시장을 설계하는 데서 비롯될 것이다.
- 유동성과 백엔드 인프라는 Polymarket과 Kalshi 같은 자본력이 탄탄한 기존 업체들이 주도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Hyperliquid나 Coinbase 같은 대형 거래소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한편, 스타트업이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영역은 사용자와의 접점(user-facing layer)이다. 즉, 프론트엔드, 소셜 트레이딩 봇, 모바일 앱을 확보하거나 레버리지를 제공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함으로써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연속적인 정보 흐름(continuous information stream)에 기반한 예측 시장 무기한 선물(perps)은 이진형 결과를 기반으로 한 시장(binary outcome markets, 이하 ‘이진형 시장’)보다 더 많은 거래량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 사용자들이 직접 다수의 시장을 개설할 수 있는 구조, 즉 롱테일 시장(longtail market)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예측 시장은 오히려 주요 이슈 중심 시장(fathead markets)에서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하는 방향이 더 효율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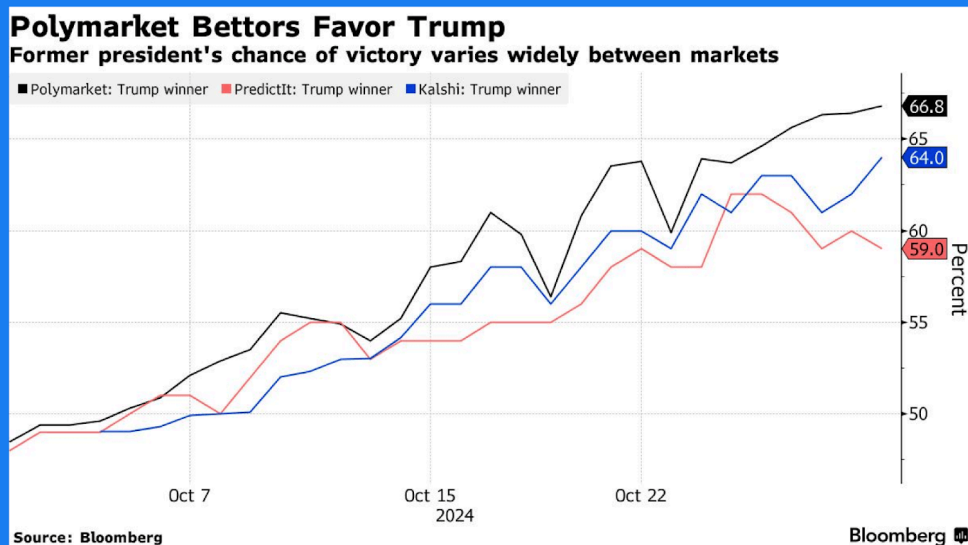
예측 시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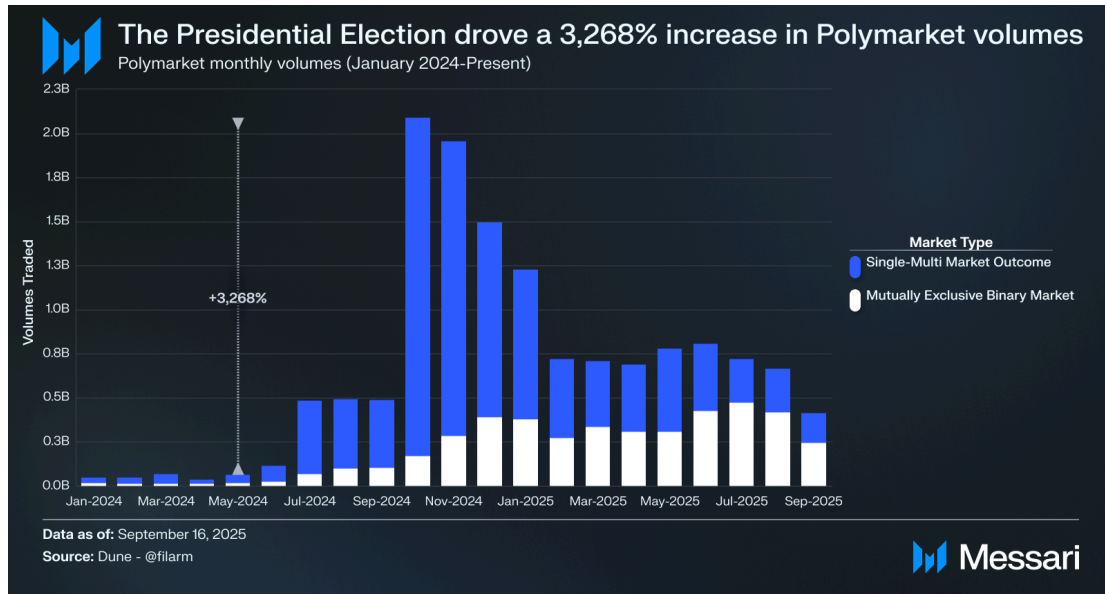
예측 시장은 제품-시장 적합성(PMF)을 입증했다.

2024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Polymarket](#)과 [Kalshi](#) 같은 플랫폼은 주류 선거 담론의 일부로 자리잡았고, 전문가와 언론사들은 전통적인 여론조사와 함께 이들 플랫폼의 시장 기반 예측 확률(odds)을 인용하기 시작했다. 시장은 선거 민심을 가늠하는 대체 지표로 인식되었고, 결국 이들 시장은 기존 여론조사보다 [실제 선거 결과를 더 정확히 예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Polymarket Cited in the Med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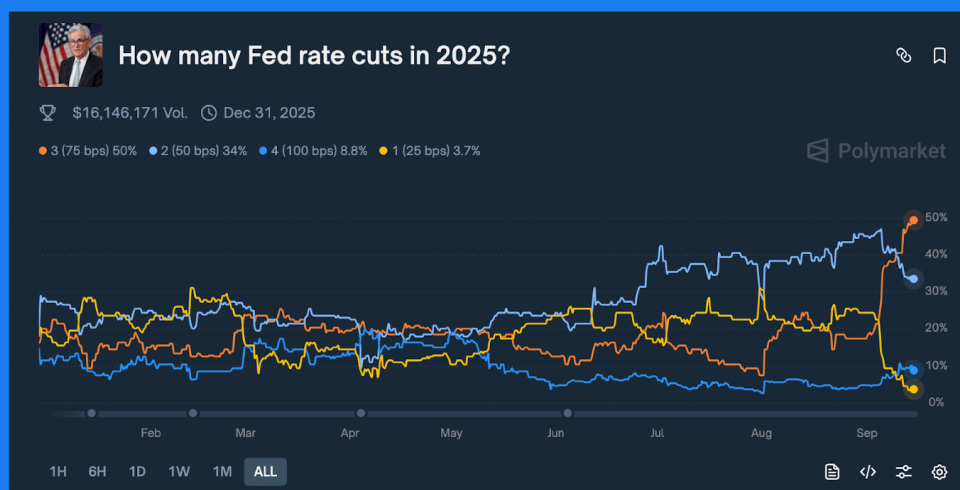


거래량은 이러한 관심 급증을 그대로 반영했다. Polymarket에서 거래량은 불과 5개월 만에 3,268% 증가했고, 5월 6,200만 달러에서 11월 5일 대선을 앞둔 10월에는 약 21억 달러에 이르며 정점을 찍었다. 이처럼 눈에 띄는 성과 덕분에 일각에서는 예측 시장을 가상자산 최초의 ‘시장 돌파형 애플리케이션(breakout application)’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회의적인 시선도 남아 있었다. 선거가 끝난 뒤에도 이런 관심이 지속될 수 있을까? [Travis Kelce](#)가 슈퍼볼 이전에 Taylor Swift에게 청혼할지, 2025년에 연준이 몇 차례 금리를 인하할지 등, 끝없이 이어지는 예측 시장 주제들에 실제로 베팅하려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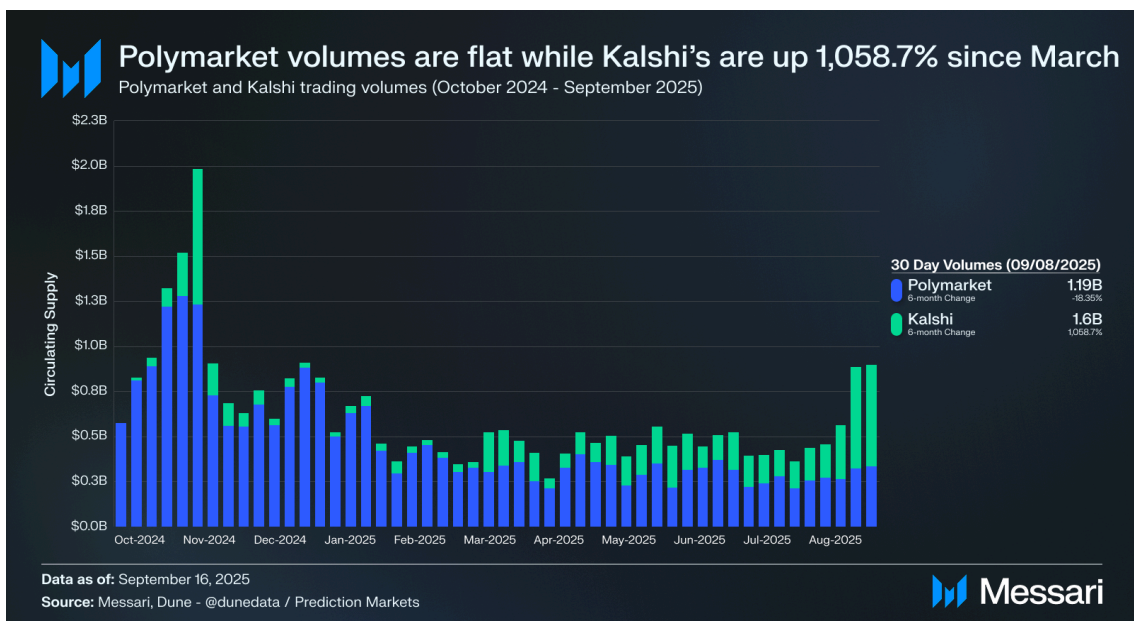
Polymarket – how many Fed rate cuts in 2025?



실제로 선거 이후 거래량은 급감했고, Polymarket의 월간 거래량은 2024년 10월 최고치인 20억 8,000만 달러에서 66% 감소하여 2025년 2월에는 7억 2,100만 달러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이후 Polymarket의 거래량은 월 6억 5,000만~8억 달러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으며, 8월에는 약 6억 6,4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거래량은 여전히 대선 유세 기간 이전 대비 10배 이상 높은 수준(이전 6,500만 달러 미만 → 현재 6억 5천만 ~ 8억 달러)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비록 10월 정점 이후 전체 거래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 시장에 대한 관심이 정치적 이슈를 넘어 지속 가능성을 입증한다.

현재 시장 성장은 두 주요 플랫폼이 모두 견인하고 있으며, Kalshi는 Polymarket을 빠르게 추격해 8월 말에는 거래 규모에서 이를 추월했다. [9월 첫째주](#) 기준 Kalshi의 명목 거래액(notional trading)은 5억 6,100만 달러로 Polymarket의 3억 2,300만 달러를 앞질렀다.



예측 시장의 궁극적인 목표는 충분한 참여자와 자본이 존재해 서로 상반되는 전망에 베팅할 수 있는 모든 사건을 금융화(financialize)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예측 시장의 총 잠재 시장 규모(TAM, Total Addressable Market)는 사실상 한계가 없다. Multico인 창립자 Kyle Samani 같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이 분야가 주식 시장을 능가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고, Paradigm의 공동 창립자 Matt Huang 역시 “어떤 의미에서 예측 시장은 가장 큰 금융시장 만큼, 어쩌면 그 이상으로 성장할 수도 있다. 나는 이 시장의 성장에는 사실상 상한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같은 견해](#)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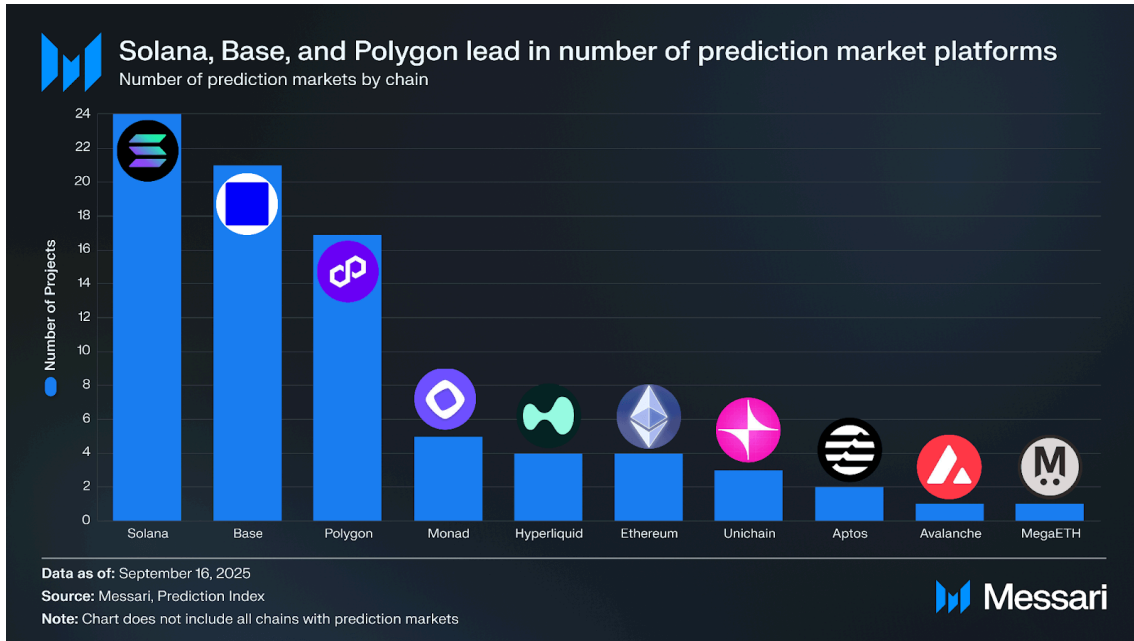
이러한 확신에 자본도 뒤따랐다. 현재까지 Polymarket은 공개적으로 7,000만 달러를 조달했고, Kalshi는 [2억 6,500만 달러를 유치](#)하며 2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다. 기업 가치가 눈에 띄게 빠른 속도로 확대되는 가운데, [최근 보도](#)에 따르면 Polymarket은 약 90억 달러 수준의 기업 가치로 인수 제안을 받았고, Kalshi는 약 5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FTC가 Polymarket의 미국 내 서비스 제공을 승인](#)하고 Kalshi가 [가상자산 부문으로의 확장](#)을 가속화하면서 규제 환경은 점점 더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가상자산과의 통합은 사실상 불가피한 흐름으로 보인다.

시장 활동은 기존 업체와 스타트업 모두에서 급증하고 있다. 예컨대 Polymarket은 다음과 같은 파트너십과 신규 상품을 잇달아 발표했다.

- [주식의 실적\(earnings\) 예측 시장](#)
- [Stocktwits와의 제휴](#)를 통해 예측 시장 확률 정보를 1,000만 명의 사용자에게 제공
- [SportsTensor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스포츠 예측 시장 유동성 확대
- [Chainlink 통합](#)을 통해 15분 단위 가상자산 가격 예측 시장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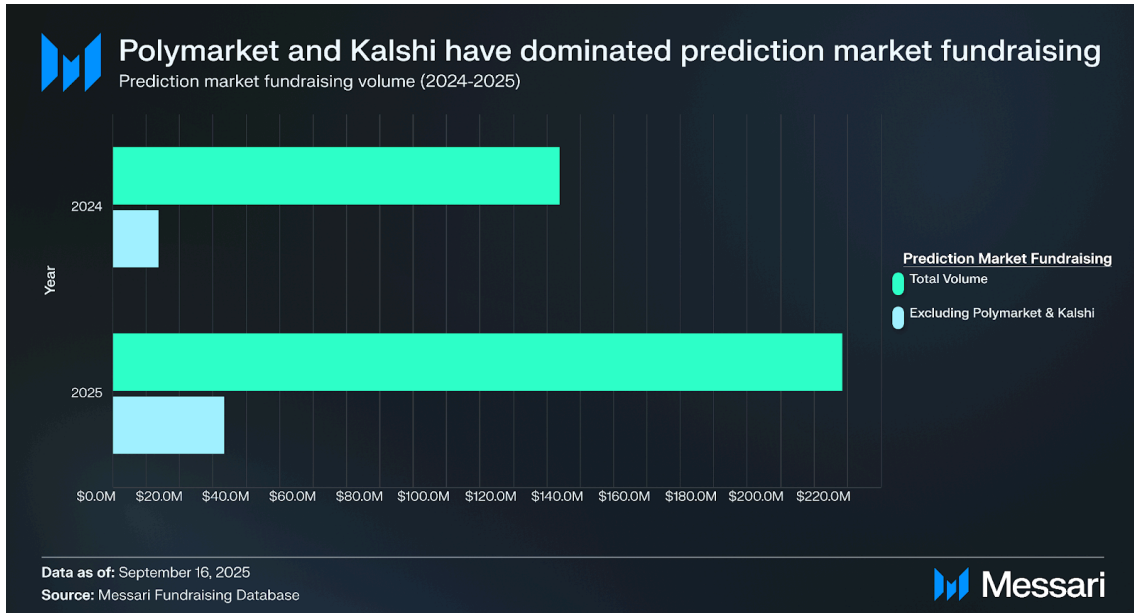
이 모든 발표가 단 3일간(9월 12일부터 15일까지)에 집중될 만큼 Polymarket의 행보는 그야말로 초고속 전개를 보이고 있다.

한편 스타트업들은 다양한 새로운 모델을 실험하고 있다. 예를 들어 X 상에서 작동하는 [레버리지 트레이딩 봇](#), 스와이프 한 번으로 베팅할 수 있는(swipe-based) “[예측 시장 틴더\(prediction market Tinder\)](#)” 앱, [예측 시장 무기한 선물\(perps\)](#), [누구나 즉시 시장을 개설](#)할 수 있는 pump.fun 스타일의 플랫폼 등이 그것이다. 현재까지 [141개 이상의 예측 시장 프로젝트](#)가 공개되었고, 거의 매주 새로운 프로젝트가 발표되고 있다. [솔라나](#)와 [베이스](#)는 예측 시장 프로젝트 수 기준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새로운 디파이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주요 체인](#)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폴리곤](#)은 세번째로 많은 프로젝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폴리곤 기반으로 운영되는 Polymarket의 프론트엔드 구축 프로젝트들이 활발하기 때문이다.



예측 시장은 이미 상당한 관심과 자본을 끌어모았으며, 향후 수조 달러 규모 산업으로 발전할 잠재력을 지닌 설계 공간(design space)이 여전히 열려 있다. 기존 업체와 신규 진입자 모두 거래량 확대, 수수료 수익 증대,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한 명확한 기회가 존재한다. 그러나 언론에서 벤처 캐피탈 자금이 예측 시장 분야에 몰려들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음에도, Polymarket과 Kalshi를 제외하면 공개적으로 발표된 자금 조달 사례는 매우 드물다. 2025년 현재 공식적으로 조달된 [2억 1,800만 달러](#) 중 Polymarket과 Kalshi를 제외한 스타트업에 투자된 금액은 고작 3,330만 달러에 불과했다.

2025년 4분기 이후에는 관련 투자 및 파트너십 발표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투자자들은 점점 더 복잡해지는 환경 속에서 스타트업에게 기회가 어디에 있는지를 면밀히 평가하고 있다.



핵심 질문은 예측 시장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용자를 유치하고 거래량을 확대해 스타트업과 기존 업체 모두가 지속 가능한 대규모 시장을 구축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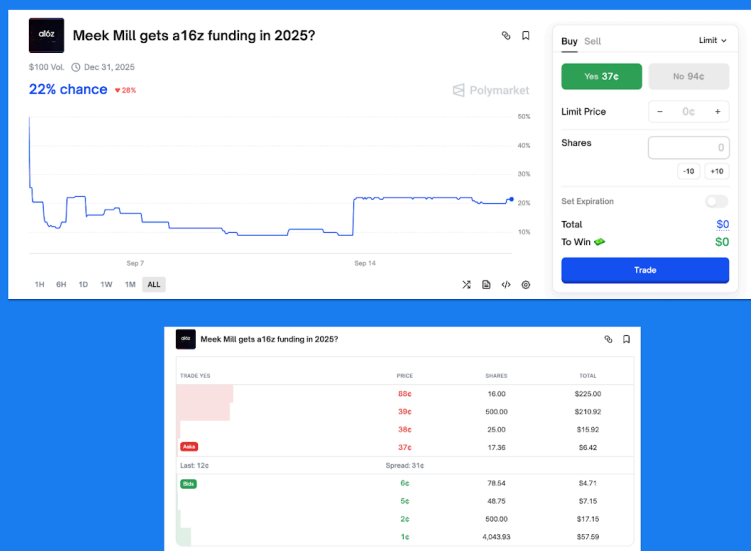
메사리는 향후 예측 시장 성장의 주요 동력이 투기적 개인투자자에 있다고 본다. 가장 유망한 접근법은 주요 이슈 중심의 시장에서 이들이 느끼는 재미(fun), 접근성(accessibility), 수익 가능성(financial upside)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반면, 소수의 롱테일 시장이나 사용자 생성형(user-generated) 시장을 통한 확장 시도는 성공 가능성이 훨씬 낮다.

유동성 문제

예측 시장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는 유동성이다.

예측 시장은 잠재적으로 무한한 주제를 다룰 수 있지만, 반대 포지션을 취할 거래 상대방이나 충분한 시장 깊이(depth)가 없으면 각 시장에 투입될 수 있는 자본 규모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Polymarket과 Kalshi에서는 대부분의 시장이 거래 규모가 미미하며, 상당수가 1만 달러 미만에 그친다. 규모가 큰 시장조차도 기관투자자나 고액투자자(whale)가 참여하기에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조금만 큰 규모의 포지션을 취하더라도 시장 가격이 수십 퍼센트포인트 변동할 위험이 있어, 결과적으로 시장 접근성이 매우 제한적이다.

Polymarket - low liquidity market example



Source: Polymarket

Messar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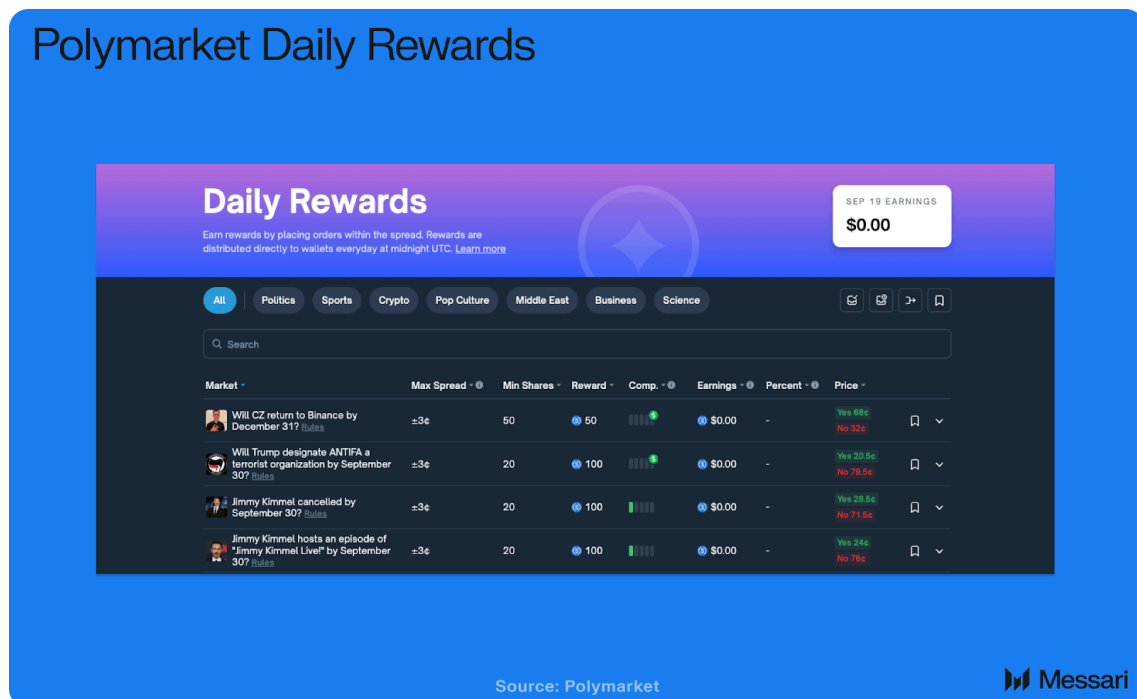
그렇다면 왜 예측 시장은 가상자산 시장이 AMM이나 CLOB로 해결한 방식처럼 이 문제를 풀지 못할까? 그 이유는 예측 시장이 '예/아니오(Yes/No)'로 구분되는 이진형 결과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ETH/USDC 같은 자산의 AMM에서는 유동성공급자(LP)가 일시적 손실(impermanent loss)을 겪을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가치가 있는 토큰을 보유한 채로 남는다. 유동성 풀은 지속적으로 균형을 맞추며, 가격이 변동하더라도 LP는 여전히 판매하거나 재투자할 수 있는 자산을 보유한다. 이처럼 양측 모두 가치가 남기 때문에 유동성이 유지(durable)되고, 또한 거래 수수료가 역선택(adverse selection)의 영향을 완화해준다.

이진형 시장(binary outcome market)은 다르게 작동한다. 예/아니오 형태의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것은 결국 0 또는 1로 귀결되는 계약의 위험을 직접 떠안는 것(warehousing risk)과 같다. ETH/USDC 같은 자산 페어와 달리, 이진형 시장에서는 결과가 확정되는 순간 양측 모두에게

남는 잔여 가치(residual value)가 없다. 정산(settlement) 시점에 양측의 보유 자산이 완전히 무가치해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속 가능한 델타 중립(delta-neutral) 전략을 운영하기가 극도로 어려워진다.

Polymarket과 Kalshi는 이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일부 대형 시장에서 스프레드 범위 내 포지션을 취하거나 특정 조건에 따라 포지션을 취하는 시장조성자(MM)/유동성공급자(LP)들에게 직접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이 전략은 플랫폼의 초기 유동성을 확보(bootstrap)하는 데에는 효과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수조 달러 규모의 예측 시장에서 확장 가능한 방식은 아니다.

막대한 VC 자금을 확보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신탁(warchests)을 쌓지 못한 대부분의 신규 예측 시장 플랫폼에게는 이러한 보조금(subsidization) 방식의 유동성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대체 전략을 모색할 수 밖에 없다.



근본적인 관점(first principles)에서 생각해 보면,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이진형 시장 구조가 마켓메이커의 참여를 어렵게 만든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양측 포지션을 동시에 감수하려는 자본 자체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예측 시장의 작동 원리(prediction market dynamics)를 좀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예측 시장의 작동 원리

[Whitaker](#)와 [Mazlish](#)의 설명에 따르면, 예측 시장에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상위 참여자가 존재한다.

 Savers, speculators, and sharps comprise most market participants Market participant comparison			
	Savers	Speculators	Sharps
Investment Horizon	Long term (years-decades)	Short term (days-months)	Varies
Objectives	Reasonable passive returns	Fast money and fun	Reasonable risk-adjusted return
Risk Tolerance	Low	High	Varies
Aggregate Capital Rank	Highest	In-Between	Lowest
Example participants	401k, pension fund, ETFs	Retail traders, sports bettors	Hedge funds, professional traders
Source: Messari 			

- 안정적 자금 보유자(Savers) -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산 가치를 추구하는 수동적 투자 자본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ETF, 연기금, 퇴직연금(401(k))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은 전세계 가용 자본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고위험 자산이나 투자에는 거의 관심이 없다.
- 투기적 개인투자자(Speculators/Gamblers)¹ - 단기 수익을 노리는 투기적 개인투자자들로 뚜렷한 정보 우위(edge)는 없지만 높은 변동성과 단기 기회를 추구한다. 이 집단은 카지노, 스포츠 베팅, 밈 주식(memestocks), 가상자산 시장 등에서 막대한 거래량을 만들어내는 핵심 원천이다.
- 전문가(Sharps) - 시장 비효율을 찾아내고 이를 정교하게 활용하는 전문 트레이더나 기관투자자들이다. 이들은 가격 발견(price discovery)과 유동성 공급에 기여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거래 상대방으로 삼을 수 있는 “비효율적 자금(dumb money)”, 즉 투기적 개인투자자들의 자본이 충분히 존재할 때만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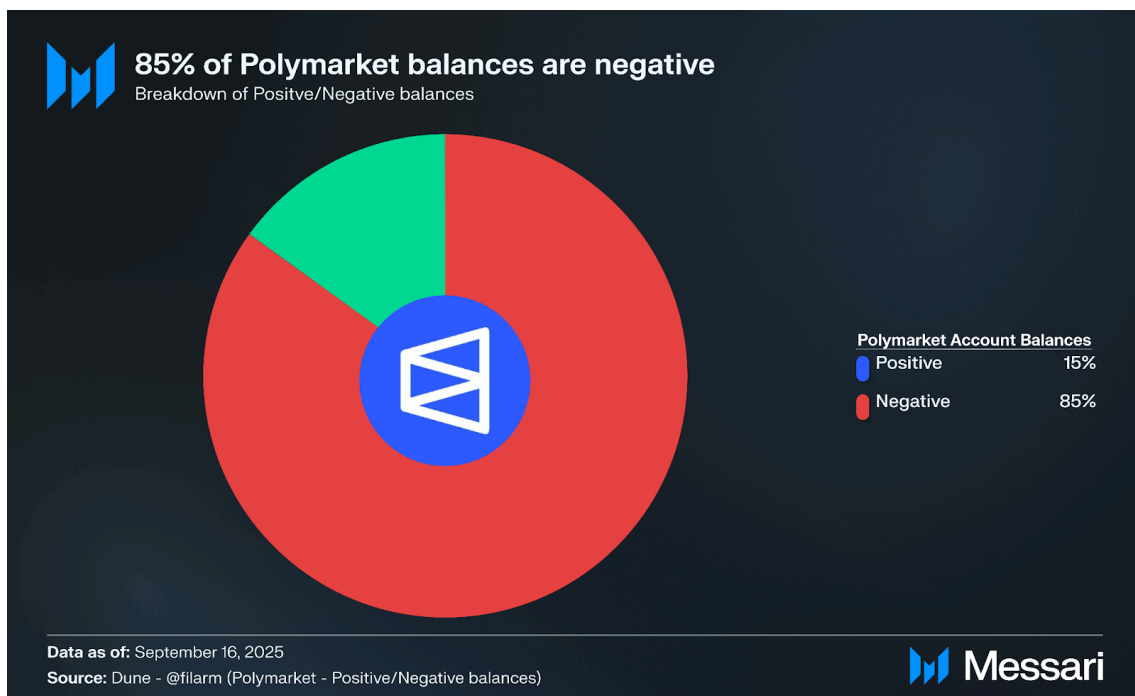
안정적 자금 보유자와 투기적 개인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비효율적 자금으로 분류되는 반면, 전문가는 효율적 자금(smart money)으로 간주된다.

예측 시장을 논의할 때는 각 참여자 집단이 시장에 어떻게 참여하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¹ 본문에서 ‘Speculators/Gamblers’는 문맥상 기관투자자와 대비되는 비전문·개인투자자 집단을 지칭하고, 투자자들의 투기적 성향(speculative behavior)을 내포하는 점을 고려해 투기적 개인투자자로 번역·표기하였다.

안정적 자금 보유자

안정적 자금 보유자들에게 예측 시장은 이진형 결과 구조와 능동적 관리의 필요성 때문에 사실상 투자 불가능한(asset uninvestable) 시장으로 여겨진다. 이들은 장기적으로 일정 수준의 변동성은 감내할 수 있지만, 자본 전액을 단일 결과에 걸 위험을 감수하지는 않는다. 또한 안정적 자금 보유자들은 전문 트레이더가 아니며, 예측 시장 참여를 위해 필요한 리서치나 분석 활동에도 큰 관심이 없다. 이 때문에 ETF나 인덱스펀드 같은 수동적(passive) 투자수단을 선호한다. 더불어 Polymarket 등 플랫폼에서 [전체 트레이더의 약 85%](#) 이상이 음(-)의 수익률(손실)을 기록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가능성도 매우 낮다. 결국 안정적 자금 보유자들은 전문가가 운영하는 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시장에 노출될 수는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예측 시장에 참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투기적 개인투자자

투기적 개인투자자들은 위험을 감수하는 데 익숙하며, 대부분 결국 손실을 본다. 예컨대 스포츠 베팅의 경우, 참여자의 [대다수가 실제로 손해](#)를 보지만, 그럼에도 계속 참여하는 이유는 참여 과정이 흥미롭고, 잠재 수익(upside)이 크기 때문이다.

투기적 개인투자자들은 네가지 가치 제안에 끌린다.

- 접근성(Accessibility): 투기적 개인투자자들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장을 선호한다. 예컨대 카지노 게임이나 스포츠 경기는 규칙이 명확해 접근이 쉽지만, 많은

롱테일(longtail) 예측 시장, 즉 소수의 관심사나 틈새 주제를 다루는 시장은 난해하거나 기술적인 내용을 다루어 일반 개인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어렵다.

- 재미(Fun): 투기적 개인투자자들은 오락성과 사회적 요소가 결합된 시장에 끌린다. 카지노는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가 즐기는 목적지형 공간으로 설계되어 있고 스포츠는 감정적으로 깊이 몰입할 수 있는 대상이다. 반면, 현재의 예측 시장은 이런 재미나 커뮤니티적 유대감을 제공하지 못한다.
- 높은 잠재 수익(High potential upside): 투기적 개인투자자들은 잭팟(jackpot), 행운의 연승(parlay), 혹은 100배 급등하는 밈코인(memecoin)처럼 큰 수익 기회를 추구한다. 예측 시장도 적게 잃고 크게 벌 수 있는 비대칭적 수익 구조(asymmetry)를 제공하지만, 명시적인 레버리지나 창의적인 인센티브 설계가 더해진다면 훨씬 더 매력적인 시장이 될 것이다.
- 빠른 결론(Faster resolutions): 투기적 개인투자자들은 빠른 피드백 루프를 원한다. 카지노 수익의 대부분이 슬롯머신에서 나오는 이유는 즉시 결과가 주어지기 때문이며, 스포츠 베팅이 인기를 끄는 것도 몇 시간 내 승패가 확정되기 때문이다. 반면 많은 예측 시장은 결과 확정까지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참여 몰입도가 낮을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현재의 예측 시장도 위에서 언급한 장점들을 모두 갖추고 있으나 각 요소를 한층 강화하고 개선한다면 훨씬 더 많은 개인투자자를 끌어들이 수 있을 것이다.

전문가

전문가들은 시장 전반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할 때 포지션을 취한다. 이러한 우위(edge)는 보통 시장의 비효율성에 덜 민감한 안정적 자금 보유자나 투기적 개인투자자가 공급하는 “비효율적 자금”을 상대로 거래하면서 얻어진다. 외부 자금 유입이 없는 상황에서 전문가들끼리 직접 맞붙어 거래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예외적으로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전문가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포지션을 취하며 위험 노출을 헤지하는 과정에서 상호 이익이 되는 시장을 창출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자신들이 다른 숙련된 참여자만을 상대로 거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시장 참여 동기가 크게 줄어든다. 포지션을 취하려면 자신의 모델이나 분석 우위(edge)가 상대방보다 우월하다고 믿어야 하는데 상대방 또한 비슷한 수준의 전문성과 정보를 갖춘 경우, 그 확신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롱테일 예측 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다. 안정적 자금 보유자와 투기적 개인투자자들은 이런 시장에 참여 의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주로 다른 전문가들과 거래하게 된다. 설령 전문가들이 연구를 수행할 의향이 있다해도 상대방 역시 자신만큼이나 동등한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인지하게 되어 시장 활동이 위축된다. 게다가 역선택(adverse selection) 문제는 이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롱테일 시장은 정보 우위를

가진 내부자(insider)에게 특히 취약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조차 공정한 경쟁이 어렵다고 판단해 참여를 꺼리게 된다.

요약하자면 안정적 자금 보유자들은 예측 시장이 장기적이고 수동적인 투자 방식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다. 투기적 개인투자자는 시장이 재미가 없거나, 접근성이 낮거나, 결론이 빨리 나지 않을 때 흥미를 잃는다. 반면 전문가는 거래할 만한 비효율적 자금이 충분히 존재할 때만 시장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시장 역학을 고려할 때 예측 시장은 어떤 유형의 참여자를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할까?

시장 확대를 위한 핵심 타겟은 투기적 개인투자자

세 집단 중 예측 시장의 거래 규모를 확장하기에 가장 유망한 대상은 투기적 개인투자자다. 안정적인 자금 보유자는 주로 전문가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시장에 참여할 것이며, 전문가 역시 투기적 개인투자자들이 거래 상대방으로 존재해야만 포지션을 취하고 시장 우위를 찾는데 시간과 노력을 들일 유인이 생긴다.

핵심 질문은 어떤 전략이 투기적 개인투자자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끌어들이고 예측 시장의 거래 규모를 확대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투기적 개인투자자들이 시장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요인은 네 가지 - 접근성, 빠른 결론, 재미, 그리고 높은 잠재 수익 - 이다.

접근성

접근성은 시장에 접근하기 쉬운 정도와 거래 주제·테마의 친숙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투기적 개인투자자에게 접근하기

투기적 개인투자자들에게 접근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들이 이미 있는 곳에서 만나는 것이다. Polymarket과 Kalshi가 의미 있는 성장을 이루긴 했지만 사용자 경험(UX)은 여전히 불완전하며, 잠재적 참여자 대부분은 이들 플랫폼에 직접 접속하지 않는다.

플랫폼이 유료 광고를 집행하지 않는다면 대중에게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채널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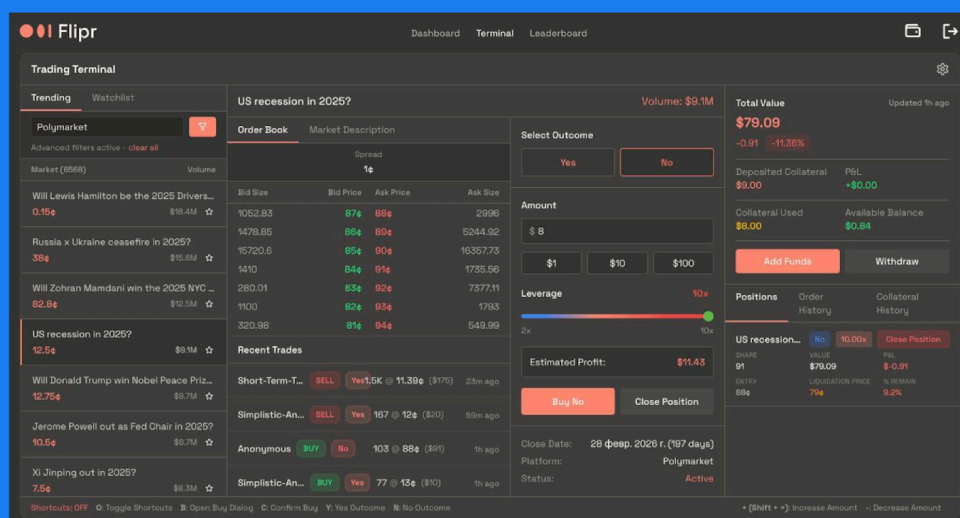
- 소셜 플랫폼(Social platforms): 예를 들어 X, 인스타그램, 틱톡 등.
- 뉴스 매체(News outlets): 예측 시장이 전통적인 여론 조사를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형태로 활용될 수 있음.
- 서드파티 투자 플랫폼(3rd party investing platforms): 예를 들어 [Kalshi와 Robinhood](#) [간 제휴](#) 사례처럼 기존 투자 플랫폼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확장.

현재 일부 스타트업들은 소셜 피드와 애플리케이션 환경에 맞춰 설계된 프론트엔드, 지갑, 봇을 통해 투기적 개인투자자와 트레이더들이 실제로 활동하는 공간에서 직접 만나기 시작했다:

- [Flipr](#)는 X 이용자가 Flipr 봇을 태그(tag)하는 것만으로 Polymarket이나 Kalshi의 예측 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론트엔드(frontend) 플랫폼이다. 또한 최대 10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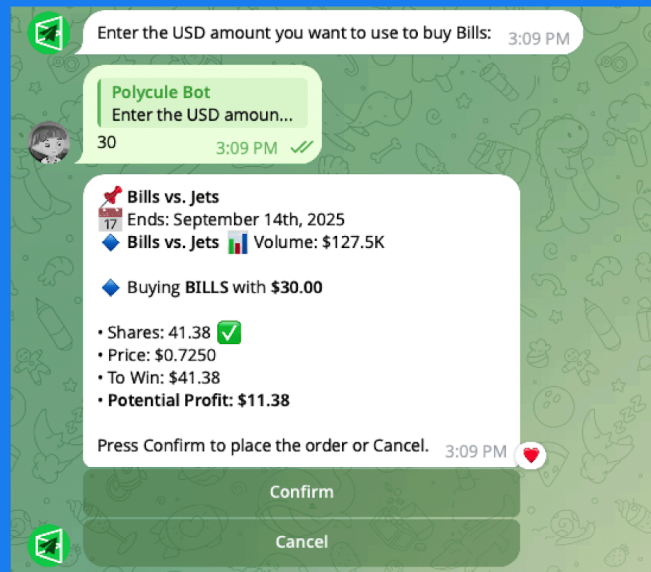
레버리지 거래를 지원한다. 아직은 초기 단계로 거래 실행의 일관성이 다소 부족하지만, Flipr는 거래 기능이 소셜 경험 속에 직접 통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를 통해 팔로워들은 실시간으로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내에서 함께 베팅할 수 있다. Flipr는 트레이딩 터미널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상위 트레이더의 거래를 모방(copy trading)하는 기능, AI 기반 분석 및 뉴스 해석 도구, 그리고 [변동성 보호\(fluctuation guard\)](#)와 같은 내장형 리스크 관리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Flipr는 토큰을 발행한 소수의 예측 시장 프로토콜 중 하나로 2024년 9월 17일 기준 FDV(Fully Diluted Valuation)는 약 540만 달러 수준이다.

Flipr Terminal - Prediction Market Frontend



- [Kash](#)는 또 다른 프론트엔드로, X 상에서 직접 거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플랫폼이다. 또한 TikTok과 Instagram 내에서도 거래 기능을 구현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레버리지 기능도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 이와 함께 [OkBet](#), [Polycule](#)과 같은 텔레그램 기반 봇들도 등장하고 있다. 이들 봇은 사용자가 메신저 앱 안에서 바로 예측 시장 거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는 가상자산 거래 봇과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한다.

Polycule - Telegram prediction market bit



Source: Polycule

Messari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예측 시장이 투기적 개인투자자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플랫폼에 통합됨으로써 이용자와의 접점을 확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 애플리케이션 대부분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스타트업이 공략할 수 있는 기회 중 하나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Polymarket과 Kalshi가 이미 유동성과 시장 공급 측면에서 사실상 압도적인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많은 신규 프로젝트에게 사용자 경험(UX)과 접근성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되고 있다.

가장 유망한 신규 진입 기회는 탁월한 사용자 경험(UX)을 기반으로 유통(distribution)을 장악하고 거래 규모를 확장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장기적으로는 수직 통합(vertical integration)을 통해 더 깊은 단계로 사업 영역을 확장할 잠재력도 존재한다.

접근 가능한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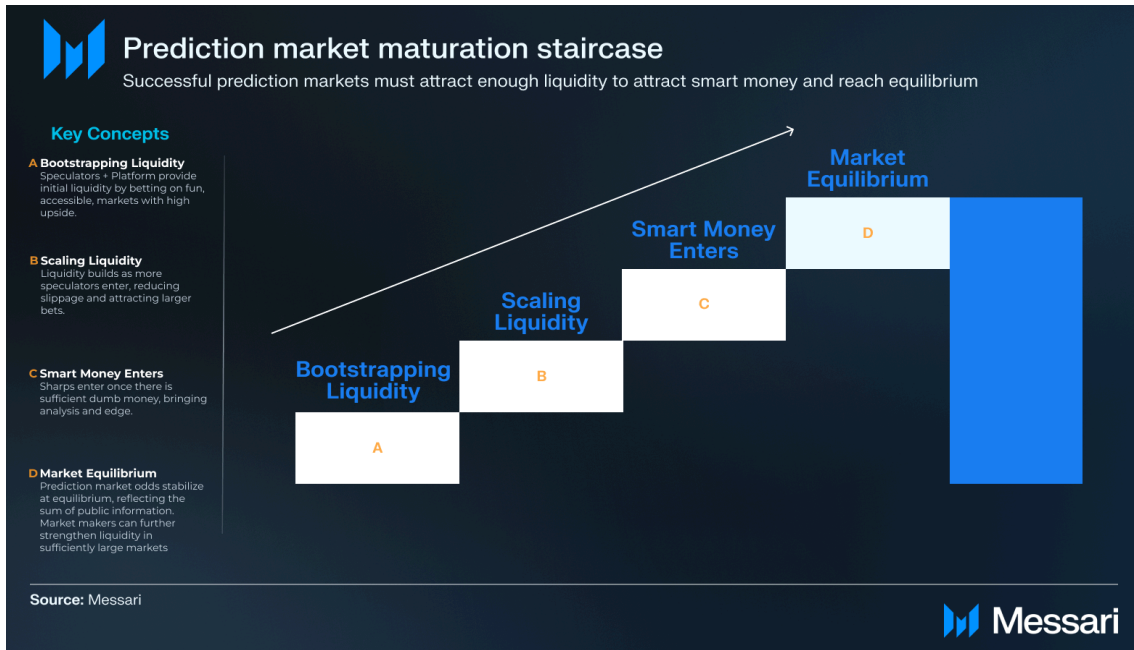
접근성은 어떤 종류의 시장이 제공되는가에도 달려 있다. 가장 인기가 높은 시장 카테고리는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스포츠(Sports): 주로 미식축구, 농구, 야구, 테니스, 축구
- 선거(Elections): 정당 경선, 중간선거, 대통령 선거 등
- 대중 오락(Mass entertainment): 영화, TV, 음악 등

전문적이거나 난해한 주제를 다루는 시장(niche or esoteric markets)은 대부분의 투기적 개인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이지 않다. 주제가 너무 생소하거나 기술적일 경우, 투기적

개인투자자들은 자신이 무엇에 베팅하고 있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하게 되며, 이로 인해 참여율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시장 유동성도 제한된다. 따라서 이러한 시장에 집중하는 스타트업은 규모의 성장을 달성하기 어렵다.

예측 시장이 주제 측면에서 얼마나 접근 가능한지는 그 시장이 ‘예측 시장 성숙도 계단(Prediction Market Maturation Staircase)’을 따라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지를 보면 판단할 수 있다.



- 유동성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liquidity): 투기적 개인투자자와 플랫폼이 함께 재미있고 접근성이 높으며 높은 수익 잠재력(upside)을 가진 시장에 베팅함으로써 초기 유동성(initial liquidity)을 형성한다.
- 유동성 확장(Scaling liquidity): 더 많은 투기적 개인투자자들이 참여하면서 유동성이 점차 축적되고, 슬리피지(slippage)가 줄어들며 대규모 베팅이 유입된다.
- 스마트 머니 유입(Smart money enters): 충분한 비효율적 자금(dumb money)이 쌓이면, 전문가가 진입하여 분석과 시장 효율성(edge)을 제공한다.
- 시장 균형(Market equilibrium): 예측 시장의 확률(odds)이 공공 정보(public information)의 총합을 반영하며 안정화된다. 충분히 규모가 커진 시장에서는 시장조성자들이 추가적으로 유동성을 강화할 수 있다.

예측 시장이 실제 시장의 인식을 정확히 반영하게 되면, 그 시장은 성숙 단계에 도달했으며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접근성은 예측 시장이 초기 부트스트래핑 단계를 통과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신규 프로젝트가 반드시 제대로 구축해야 할 핵심 요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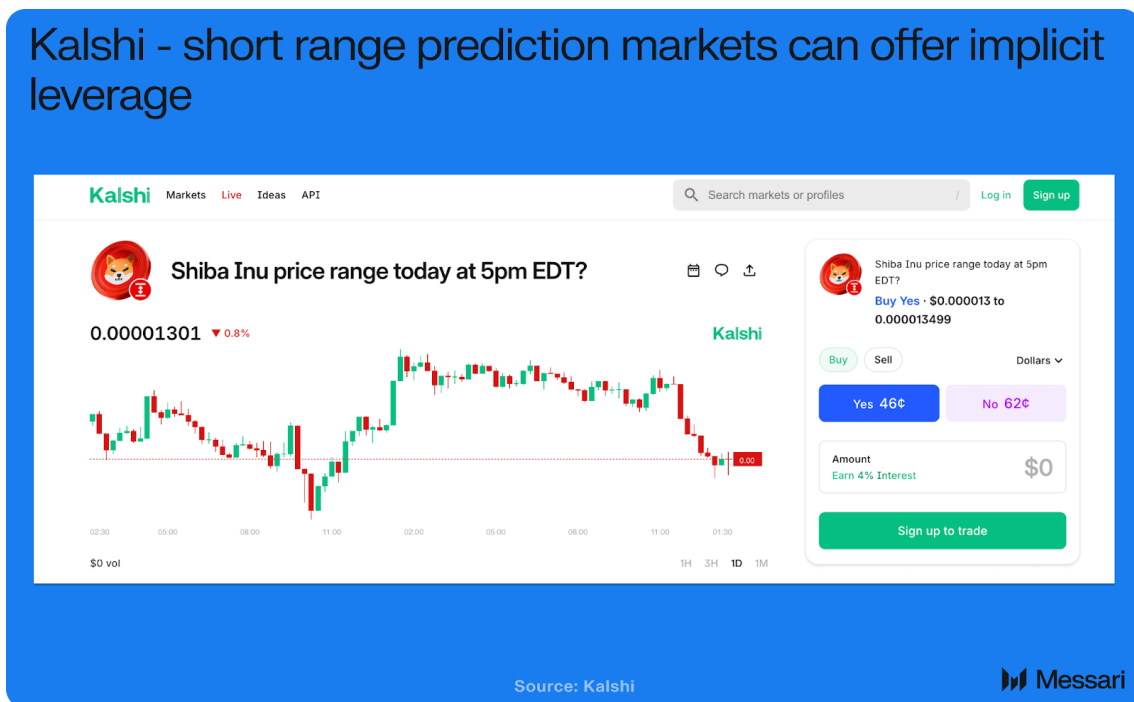
높은 잠재 수익

투기적 개인투자자, 그리고 경우에 따라 전문가도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더 높은 위험을 감수할 의향이 있다. 따라서 고수익(레버리지 등)을 제공하는 예측 시장은 그렇지 않은 시장보다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예측시장은 암묵적 레버리지(implicit leverage), 무기한 선물, 그리고 시장 부트스트래핑 보상(bootstrapping rewards)을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 잠재력을 제공할 수 있다.

암묵적 레버리지 / 이진형 옵션

예측 시장은 연속적인 가격 흐름을 가진 자산에 대해 일정 시점마다 특정 가격을 기준으로 예/아니오(binary outcome) 형태의 베팅을 허용함으로써 암묵적 레버리지(implicit leverage)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9월 18일 비트코인(BTC) 가격이 115,000달러 이상일까, 이하일까?”라는 시장은 그 확률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거래자에게 사실상 레버리지가 내재된 구조를 제공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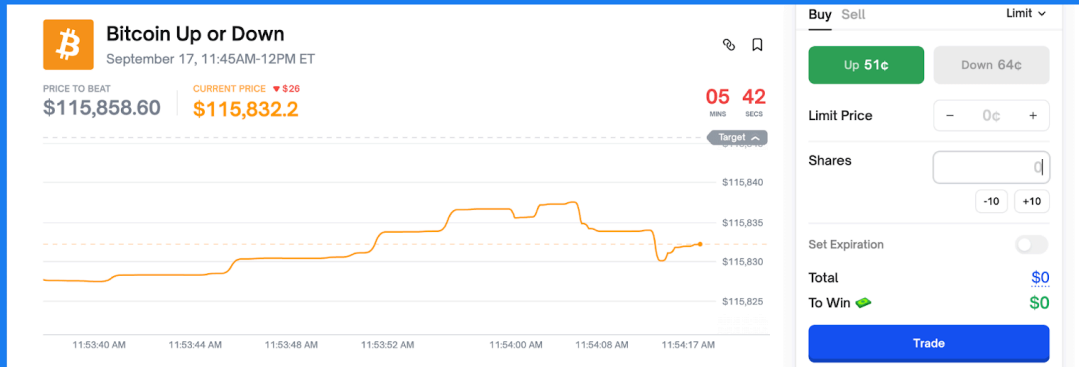


무기한 선물과 달리, 이러한 시장에서는 임의의 시점에 청산(liquidation)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시장 종료 시점에 자신의 베팅 전액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불리한 확률(odds)로 거래하게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Kalshi 같은 기존 업체들부터 [Limitless](#)(9월 현재 거래량 1,000만 달러 이상)를 비롯한 신생 플랫폼, 그리고 여러 스타트업들까지 이미 이러한 형태의 계약을 통해 의미 있는 거래 규모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9월 12일 Polymarket은 [Chainlink와의 파트너십을 발표](#)하며 15분 단위 가상자산 예측 시장을 출시했다. 이는 이런 단기 예측 시장 포맷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보다 긴 주기의 유사 시장들에서도 이미 확실한 성과(traction)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Polymarket - 15 minute interval prediction markets



트레이더들이 장기적으로 이진형 시장을 무기한 선물보다 선호하게 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전통 금융에서 무기한 선물(perps)과 유사한 상품인 선물 계약(futures contract)은, 이진형 옵션(binary options)에 비해 훨씬 큰 [미결제약정\(open interest, OI\)](#)을 보인다. 2025년 9월 9일 기준 선물 계약의 미결제약정은 2,035,000건으로, 이진형 옵션의 경우 대부분 이 수치조차 공개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두 시장이 동일 선상에서 비교 가능하다고 가정할 때, 무기한 선물이 더 큰 거래 규모를 끌어들이는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예측 시장 무기한 선물

레버리지를 구현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무기한 선물 구조를 예측 시장에 적용하는 접근이 등장하고 있다. 단일한 이진형 결과(binary resolution)를 기다리는 대신, 시장 전체가 연속으로 롤오버되어 사실상 정산(settlement) 없이 지속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여러 프로토콜들이 Polymarket 및 Kalshi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예측 시장형 무기한 선물(perps) 기능 구현을 추진 중이다. 예를 들어, [Seda](#)는 HIP-3가 출시되면 Injective 및 Hyperliquid 상에서 두 플랫폼의 무기한 선물 기능을 구축할 계획이다. Seda는 최근 Canelo vs.

Crawford 복싱 경기의 실시간 예측 확률(live odds)을 기반으로 한 무기한선물 거래 기능을 테스트넷(testnet)에서 구현했으며, 현재는 1배(1x) 레버리지로만 제공되고 있다.

무기한 선물은 결과 확정 과정(resolution criteria)에서 사람의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절차에 의존하지 않고 연속적인 데이터 흐름(continuous data stream)에 기반해 시장을 운영할 수 있다. 이로써 예측 시장을 보다 단순하고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으며, 가격이 이진형 결과에 의존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변동하기 때문에 투기적 개인투자자의 참여를 주저하게 만드는 결제 지연 문제(long resolution problem)도 피할 수 있다.

연속적인 정보 흐름 기반 무기한 선물

연속적인 정보 흐름은 빠른 피드백 루프(fast feedback loop)를 만들어내며, 이는 가상자산 무기한 선물이 성공할 수 있었던 시장 역학을 재현한다. [Narrative](#)와 [Perp.city](#) 같은 프로젝트들이 이러한 모델을 실험 중이며, 예를 들어 Polymarket과 Kalshi 간 상대적 거래 규모처럼 실시간으로 갱신되는 정보 데이터를 기반으로 거래가 가능한 정보 시장(information market)을 구현하고 있다.



연속적인 정보 흐름 기반 시장의 가능성은 매우 폭넓다. 필요한 것은 단 두 가지 —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피드(data feed)와 양측 포지션에 자본을 투입할 의향이 있는 참여자뿐이다. 응용 사례도 무궁무진하다. 예를 들어 perp.city 같은 플랫폼은 X 상에서 일론 머스크(Elon Musk)에 대한 긍정·부정 여론(sentiment)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추적해 거래 가능한 시장을 만들 수도 있다. 이러한 시장은 연속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변동성이 내재되어 있으며, 이진형

시장처럼 결과 확정을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다. 또한 가상자산 무기한 선물과 유사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 높은 수준의 레버리지 거래도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되면, 연속 정보 기반 예측 시장은 기존의 이진형 시장보다 훨씬 더 많은 투기적 개인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발전할 잠재력이 있다.

Continuous information prediction markets may appeal more to retail
Binary outcome vs. continuous information prediction markets

	Binary Outcome	Continuous Information
Resolution Speed	Slow - Fast	Very Fast
Forms of leverage	Collateralized lending + (Potentially perps)	Perps
Downside risk	Entire bet at stake	Dependent on leverage and volatility
Resolution challenges	Oracle accuracy and resolution condition logic/wording	Integrity of information stream

Source: Messari

Messari

[Parcl](#)은 부동산(real estate) 분야에서 하나의 선례를 보여준다. 이 플랫폼은 도시 및 지역별 주택 가격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연속형 시장(continuous flow markets)을 통해, 해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거래(trading)를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시장은 항상 명확한 확률(odds)을 가격에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자산(non-asset) 이벤트를 금융화(financialize)하는 방식으로 투기적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을 끄는 데 효과적이었다. 다만 실제 운영에서는 연속 정보 시장(continuous information market)이 성과를 내지 못했다. Parcl은 투기적 개인투자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점차 크립토 네이티브(crypto-native) 성격을 약화시키고, 전통적 부동산 투자자 중심의 모델로 방향을 전환(pivot)했다.

결국 문제는 다시 ‘관심(attention)’과 ‘재미(fun)’로 귀결된다. 투기적 개인투자자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추적하는 과정이 흥미로운 시장에만 참여한다. 반면 전문가는 복잡한 정보 흐름을 분석하고 모델링할 수 있지만, 거래를 할 만한 가치가 있으려면 그 반대편에 충분한 ‘비효율적 자금’이 존재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연속적인 정보 흐름 시장도 다른 예측 시장과 마찬가지로 참여자들의 관심이 곧 유동성과 거래를 결정짓는 구조(attention economy dynamics) 속에서 작동한다. 그러나 이들은 이진형 계약(binary contract)의 한계인 긴 결제 대기 문제(long resolution problem)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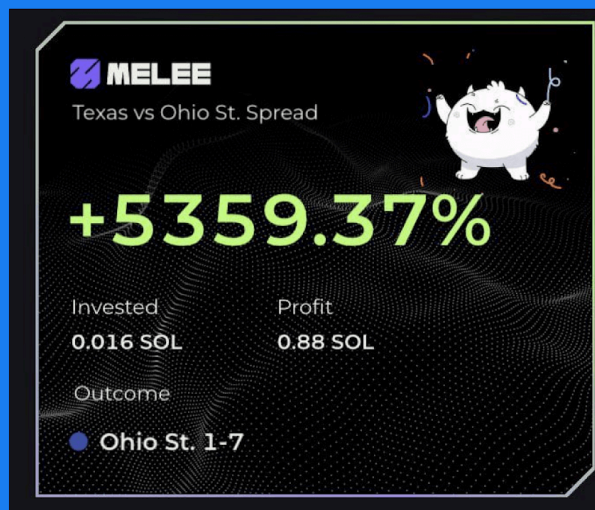
해소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연속적인 정보 흐름 시장은 예측 시장의 주요 성장 축으로 부상할 잠재력이 높다.

메사리의 견해: 연속적인 정보 흐름을 기반으로 구축된 예측 시장 무기한 선물이 향후 예측 시장 부문에서 거래 규모를 견인하는 가장 큰 성장 동력으로 부상할 수 있다.

예측 시장을 위한 레버리지형 예측 시장

또 하나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접근 방식은 시장을 개설하고 시드를 공급하는 참여자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다. [Melee](#)는 예측 시장의 [pump.fun](#)을 지향하며, 누구나 원하는 주제로 손쉽게 시장을 개설(spin up)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초기 참여자들은 시장 초기 단계에서 상대적으로 큰 보상(rewarded disproportionately)을 받으며, 시장 규모가 커질수록 신규 참여자에게 배분되는 지분(share allocation)은 점차 줄어든다. 예를 들어, 시장 개설자(creator)가 100주(share)를 받고, 첫 번째 매수자는 3주, 두 번째 매수자는 2주를 받는 식이다. 만약 해당 시장이 성장세(traction)를 보이면, 초기 참여자들은 높은 보상을 얻을 수 있으며, Melee는 최대 1,000배 이상의 수익률(returns)도 가능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 모델에서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장은 유명 크리에이터나 인플루언서가 주도하는 시장, 혹은 예측 시장과의 제품-시장 적합성이 가장 높은 주제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

Melee - potential profit from launching a market



Source: Melee

Messari

Melee는 예측 시장 개설을 시장 경쟁에 맡기는 방식(free market approach)으로 접근하고 있다. 즉, 가장 매력적인 예측 시장을 개설한 창작자(creator)와 초기 참여자(early adopter)에게 상대적으로 큰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좋은 시장이 위로 떠오른다(the cream will rise

to the top)’는 원리에 베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Melee는 단순한 예측 시장 런치패드가 아니라, “예측 시장을 위한 예측 시장(prediction market for prediction markets)”에 가깝다. 즉, 트레이더들이 유망한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베팅하고, 초기에 포지션을 취함으로써 가장 크게 성장할 시장을 예측·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다.

대출 기반 레버리지

예측 시장에서 레버리지를 구현하는 또 다른 새로운 방식은 기존 디파이 렌딩 프로토콜(AAVE 등)과 유사하게 자신의 예측 시장 포지션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는 구조다.

예를 들어 [Gondor](#)는 Polymarket 포지션을 담보로 USDC 형태의 초과담보 대출(over-collateralized loan)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토콜을 개발 중이다.



가장 큰 미해결 과제는 이진형 시장에서 결과가 0으로 정산되는 포지션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점이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구조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Paradigm은 지난 6월 ‘[멀티버스 파이낸스\(Multiverse Finance\)](#)’ 라는 개념을 제시했으며, 이는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적 대안으로 평가된다. Multiverse Finance는 예측 시장 포지션 보유자가 동일한 시장 결과에 연동된 다른 토큰 단위의 자산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당신이 “Eric Adams가 뉴욕 시장 선거에서 중도 사퇴할 것이다”라고 판단한다면, AdamsOutUSDC를 매수하고 이를 담보로 AdamsOutSOL을 대출받을 수 있다. 만약 Adams가 경선을 계속 치른다면, 차입자의 AdamsOutUSDC 포지션과 대출자의

AdamsOutSOL 포지션이 모두 0으로 소멸되므로, 별도의 청산(liquidation)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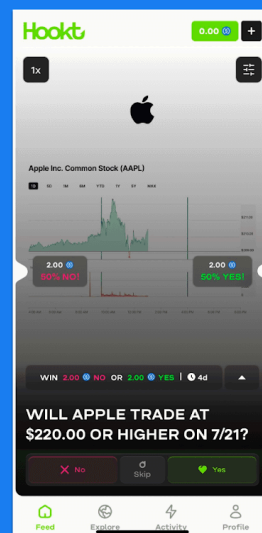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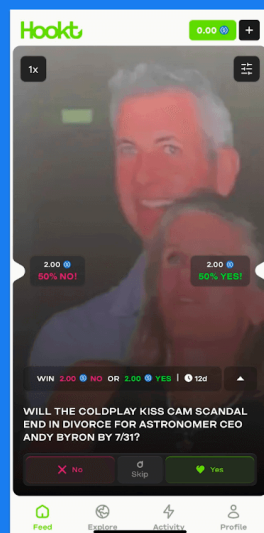
이러한 파생상품 구조는 이진형 시장의 초기 유동성을 부트스트래핑(bootstrap)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실험적 시도들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재미

투기적 개인투자자는 재미를 원하며, 예측 시장이 더 많은 투기적 개인투자자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사용자 경험을 개선해야 한다. 최근에는 소셜 중심(social-first) 접근 방식을 적용해 베팅을 더욱 흥미롭게 만드는 프로젝트들이 늘고 있다.

- 예를 들어 Hookt는 [BRKT](#) 예측 시장을 위해 Tinder식 스와이프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사용자는 화면을 스와이프하는 동작만으로 2~50달러 규모의 소액 베팅을 쉽게 할 수 있다. 이처럼 마찰 없는(frictionless) UX 와 중독성 있는 인터랙션 루프(interaction loop)가 결합되면, 시장 주제가 접근 가능하고 흥미로울 경우, 예측 시장 경험은 게임처럼 느껴질 수 있다.

Hookt App Example Marke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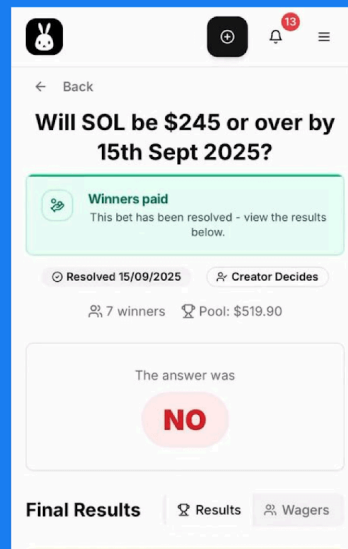
Source: Hookt

Messari

- Polymarket 계열의 신규 앱인 Fireplace 는 친구와 함께 투자하는 경험을 강조한다. 이 앱의 소셜 레이어(social layer)는 함께 베팅하는 즐거움과 에너지를 재현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예측 시장을 혼자 하는 거래(trade)가 아닌 공유된 활동(shared activity)으로 포지셔닝한다.

- [AllianceDAO](#)가 개발 중인 Poll.fun은 소규모 친구 그룹 간의 P2P 예측 시장에 초점을 맞춘다. 사용자는 어떤 주제든 직접 시장을 개설하고 지인과 바로 베팅할 수 있다. 오라클(oracles)이 모든 질문을 다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 확정(resolution)은 시장 개설자나 참여자들의 투표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 모델은 롱테일(long-tail) 문제를 회피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규모 확장성(scale)에는 한계가 있다. 대신 소규모이지만 다수의 사회적(social) 시장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Poll.fun lets friends create prediction markets between themselves



Source: Poll.fun

Messari

예측 시장을 ‘재미있게’ 만드는 설계 공간은 여전히 무궁무진하다. 앞으로는 기존 스포츠 베팅에서 검증된 메커니즘을 차용한 모델과, 가상자산 생태계에 특화된 완전히 새로운 형식의 예측 시장이 모두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가능한 응용 사례로는 유명인, 정치 평론가, 인플루언서 등의 베팅 내역을 추적하는 리더보드를 통해 투기를 단순한 거래가 아닌 오락과 사회적 신호(social signaling)의 결합된 형태로 발전시키는 방안 등이 있다.

기타 성장 경로

예측 시장은 새로운 시장을 추가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기존 시장을 더욱 흥미롭게 만드는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 중 하나의 접근법은 시장 거래 방식을 다양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바스켓 트레이드(basket trades)나 지수(index) 형태의 거래를 도입하면, 참여자들은 개별 사건이 아닌 하나의 주제에 대한 방향성 있는 전망을 표현할 수 있다. 예컨대 2028년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경선(primary)에서 어떤 트레이더가 비주류 후보들이 가장 좋은 성과를 낼 것이라고 믿지만, 각 후보의 개별 성과를 일일이 추적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비주류 후보군(outsiders)’으로 구성된 맞춤형 바스켓을 만들고 경선 구도가 변할 때마다 이를 리밸런싱(rebalancing)하는 구조를 통해, 현재로서는 불가능했던 방식으로 그의 시장 전망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전문가들이 예측 시장을 지수나 바스켓 형태로 묶어 투기적 개인투자자는 물론 안정적 자금 보유자까지도 투자할 만한 상품으로 설계하는 방향도 상상해볼 수 있다.

시사점

롱테일 중심 전략은 비효율적

예측 시장에서 투기적 개인투자자가 주요 자본 공급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롱테일 시장(long-tail markets)은 일반적으로 매력적인 성장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 투기적 개인투자자들은 대체로 이해하기 쉽고, 감정적으로 몰입할 수 있으며, 대중적 관심이 높은 대형 시장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시장 거래량은 [파레토 법칙](#)(80/20 규칙)을 따른다 — 즉, 소수의 시장이 전체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예측 시장 역시 예외가 아니다. “모든 것을 예측화(predictify everything)” 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플랫폼은 거래량이나 시장 점유율을 극대화하기 어렵다. Poll.fun과 같은 사례에서 보듯 롱테일(long-tail) 시장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이 시장만으로는 수조 달러 규모의 산업으로 성장할 만한 확장성(scale)을 확보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다소 생소한 주제에 대해서도 기꺼이 리서치를 수행할 수 있지만, 투기적 개인투자자의 유의미한 참여가 없다면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기 어렵다. 연속적인 정보 흐름 시장도 마찬가지로 관심(attention)은 결국 소수의 핵심 시장(fat-head markets)에 집중될 것이며, 이는 가상자산 무기한 선물(perps) 시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핵심 시장에 집중

핵심 시장이야말로 거래량이 집중되는 곳이자, 대부분의 예측 시장 참여자들이 실제로 거래하는 영역이다. 따라서 이 시장을 더 재미있고, 접근하기 쉬우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명확한 성장 전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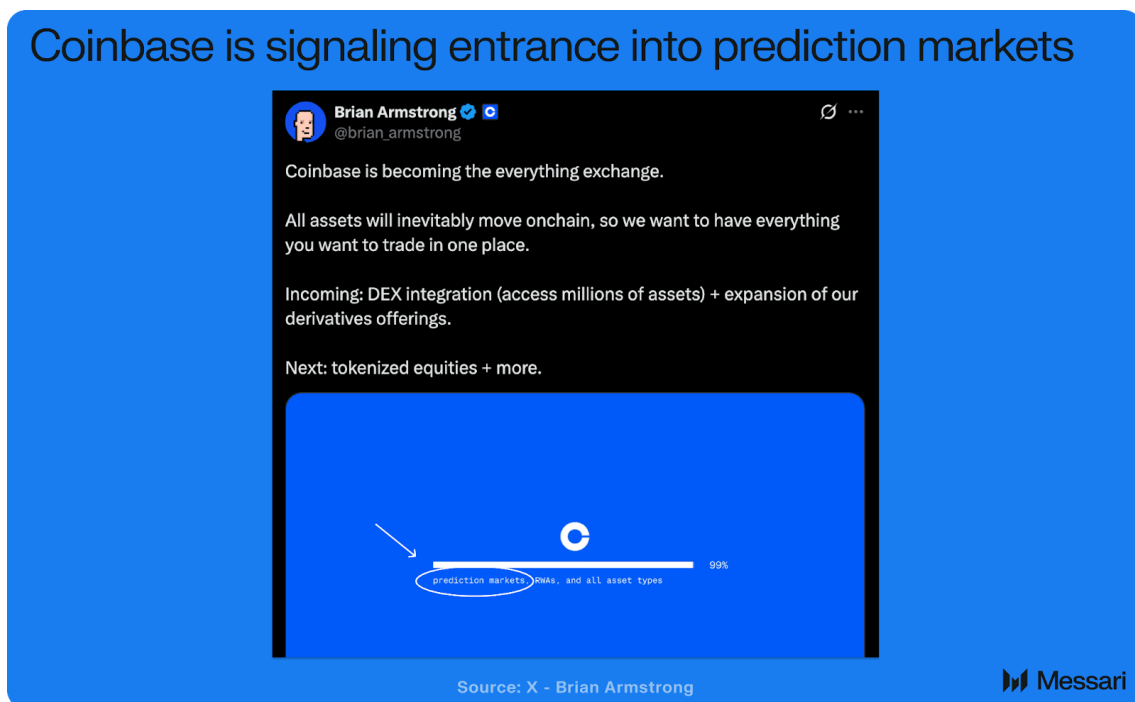
- 프론트엔드 및 소셜 통합: 맞춤형 앱, 소셜 피드에 내장된 트레이딩 봇, 게임화된(gamified) 사용자 경험 제공
- 레버리지: 핵심 시장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 새로운 거래 포맷: 바스켓, 지수, AI 기반 파생상품 등을 도입해 사용자가 개별 사건이 아닌 주제 전체의 흐름이나 방향성(broader directional view)에 베팅할 수 있도록 지원

기존 업체는 백엔드를, 스타트업은 프론트엔드를

Polymarket과 Kalshi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금(war chest)을 확보하고 있어 예측 시장의 유동성 허브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과 핵심 거래 인프라 영역에서 직접

경쟁하며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는 승산이 낮은 전략이다. 이 도전은 Hyperliquid와 Coinbase 같은 대형 거래소가 예측 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Hyperliquid의 [HIP-3 제안](#)은 예측 시장이 자체 유동성 풀(liquidity base)에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최근 공개된 [HIP-4 제안](#)은 무기한 선물이 아닌 이진형 예측에 특화된 기능 개선안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코인베이스는 자사를 “모든것을 거래할 수 있는 종합 거래소(Everything Exchange)”로 발전시키겠다는 비전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며 홍보 자료에서도 예측 시장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스타트업들은 모바일 앱, 텔레그램 봇, 소셜 통합 등 사용자 접점 영역에서 혁신을 시도하기에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 특히 연속적인 정보 흐름 시장과 무기한 선물 분야는 여전히 실험의 여지가 크게 열려 있는 영역이다.

반면 기존 업체들은 프론트엔드 영역을 쉽게 내줄 수 없다. 결국 유통(distribution)이 경쟁력의 핵심이며 사용자와의 접점을 통제하는 주체가 궁극적으로 백엔드의 지배권까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Polymarket과 Kalshi 역시 이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X와의 파트너십 추진, Fireplace와 같은 소셜 모바일 앱 개발을 통해 사용자와의 접점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엔드게임: 로열티 프로그램과 높은 CAC

아무리 TAM 전망이 낙관적이라 하더라도 예측 시장이 합법 스포츠 베팅이나 카지노 도박 시장의 규모를 넘어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 역사를 돌아보면 이 시장 역시 투기적 개인투자자를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 유사한 전략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높다.

DraftKings와 FanDuel은 고객 확보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고 있으며, FanDuel의 고객당 획득 비용(CAC)은 [약 290달러](#)에 달한다. 이들은 무료 베팅, VIP 클럽, 로열티 프로그램 등을 통해 베팅 이용자의 유지율(retention)을 높이고, 고객 생애 가치(lifetime value, LTV)를 극대화한다. 예측 시장 또한 대형 투자자(whale speculator)를 확보하기 위해 이와 같은 전략적 운영 모델(playbook)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 Polymarket과 Kalshi가 이미 막대한 현금 보유고를 쌓고 있고, 향후 대형 거래소들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경우, 인센티브와 로열티 프로그램을 둘러싼 경쟁으로 시장이 수렴할 가능성이 크다.

결론

예측 시장은 이미 틈새적 실험(niche experiment)의 단계를 넘어, 지속 가능한 금융 기본 구조(durable financial primitive)로 자리 잡았다. 2024년 미국 대선 기간 동안의 급성장은 투기 수요(speculative appetite)와 집단 지성(crowd-based forecasting)의 정확성을 모두 입증했다. 현재 거래 규모가 선거 이전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측 시장은 투자자 관점에서도 그 유효성이 검증된 시장으로 평가된다. 이제 핵심 질문은 예측 시장이 어떻게 성장성과 거래 규모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가로 옮겨가고 있다.

거래량은 앞으로 정치, 스포츠, 거시경제, 엔터테인먼트 등 서사가 강하고, 결과가 명확하게 이해되며, 투기적 개인투자자들이 재미와 수익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핵심 시장(fat-head markets)에 집중될 것이다. 전문가와 기관투자자들은 충분한 개인투자자 유입이 이루어져 수익성 있는 거래 환경이 조성될 때에만 뒤따를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예측 시장은 주식이나 채권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카지노, 스포츠북, 소셜 투자 앱과 같은 이용자의 ‘관심과 자금’을 두고 경쟁하게 된다. Polymarket과 Kalshi 같은 기존 사업자에게 주어진 기회는 그들의 막대한 자금력(war chest)과 규제 기반(regulatory foothold)을 활용해 유동성과 인프라 영역을 장악하는 것이다. 반면, 스타트업들이 진입할 수 있는 기회는 유통과 사용자 경험에 있다. 즉, 소셜 플랫폼에 시장 기능을 직접 내장하고, 참여를 게임화하며, 레버리지와 새로운 계약 구조를 통해 혁신하는 것이다. 특히 연속적인 정보 흐름 시장은 예측 시장 분야의 ‘무기한 선물’에 해당하는 모델로 발전할 잠재력이 있으며, 이를 통해 이진형 시장보다 훨씬 빠른 피드백 루프와 높은 참여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롱테일 시장은 계속 존재하겠지만, 산업의 확장을 이끌지는 못할 것이다. 진정한 승자는 투기적 개인투자자들이 이미 머무르고 있는 공간에서 그들을 포착하고, 오락적 재미를 극대화하며, 도박과는 유사하지만 차별화된 방식으로 시장을 포장할 수 있는 주체가 될 것이다. 현재 예측 시장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본력, 우호적인 규제 환경, 그리고 여전히 무한히 열려 있는 설계 공간을 바탕으로, 단순히 살아남는 수준을 넘어 가상자산 산업의 핵심 축 중 하나로 확장할 준비가 되어 있다. 예측 시장의 다음 장은 ‘모든 것을 예측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소수의 시장을 완성도 높게 다듬고, 그 시장을 외면할 수 없게 만드는 방식으로 쓰여질 것이다.

By [Dylan Bane](#)

Sep 19, 2025 · Enterprise

원문 링크 :

<https://messari.io/report/time-will-tell-what-s-next-for-prediction-markets-volume-growth-strategies-continuous-information-perps-and-capitalizing-on-momentum>

법적 고지서

본 자료는 투자를 유도하거나 권장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팀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당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자신의 판단으로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나타난 정보, 의견, 예측은 본 자료가 작성된 날짜 기준이며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과거 실적은 미래 실적에 대한 지침이 아니며 미래 수익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에 나타난 모든 의견은 자료 작성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당사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본 자료와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나타난 모든 의견은 자료 작성자 개인적 견해로서,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습니다.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의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고,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될 수 없습니다.